

어려운 때일수록 질병관리를 철저히 하자



박 남 용 교수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장)

오늘날 일선 양돈업계는 계속 양등하고 있는 사료문제로 어려운 난관에 봉착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질병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 같다. 모두가 국가 경제가 거덜난 IMF한과 때문이리라. 물론 그동안 무절제한 종돈의 수입에 따른 질병의 국내 유입으로 그 피해가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날 이런 상황의 발단은 축산업 전반에 걸친 공황상태가 계속되자 양돈가들의 헤이해진 대처의식이 결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만연화 되다시피한 PED 질환만 해도 수년동안 TGE와 함께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법정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근절대책을 수립한 콜레라나 오제스키병과 같은 질병의 피해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한겨울 지내자면 전국적으로 수만 마리 이상이 폐사되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있다. 오늘날 돼지 질병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이만큼 부각된 적도 없을 것이다. 이는 대만의 구제역, 구라파의 콜레라, 미국의 PRRS 등과 그리고 우리 나라의 PRRS와 PED의 피해 상황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에서는 공동방역사업단이 결성되어지고 있으나 문제는 운영상의 효율성이다. 사실 전문가의 자문이 아주 중요할 듯 하지만 양돈농가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 없이는 이 사업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 뻔하다. 아무리 좋은 정부시책이 채택되어 각 지역 별로 모여서 회의만 열어봤자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면 많은 돼지 질병은 우리 나라에 상재화 될 것이다. 방역 관련공무원 여러분들도 형식적인 예찰활동을 계속한다거나 적절한 백신이나 노동력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공동방역사업이네 하면서 탁상에서 계획된 정책으로 일선 공수의들에게 과도한 백신량만 할당하여 국고를 낭비하는 일을 자제해야 할 것이며, 연구소나 대학내 연구가들은 지속적으로 질 좋은 백신 개발이나 새로운 첨단 진단 기법 개발에 박차를 가하되 아주 순수하고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며, 조그마한 연구실적에 침소봉대하여 자기선전에 열을 올리는 일일랑 삼가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부시책, 질 좋은 백신개발 그리고 전문가들의 진단 활동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일선 양축가들의 의식구조가 변하지 않은 채, 자기들의 고집과 타성대로 양돈장을 운영한다면 성공적인 방역이란 가망이 없다. 돼지 전염병 특히,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은 그 특성이나 사육조건상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역 활동은 양돈단지별 또는 지역단위별로 공동방역전선을 구축하지 않는 이상 혼자서 몸부림친다 해도 실패하기 십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양돈업계는 사양관리 효율성 증대와 질병에 대한 근절대책이 이렇게 절실한 때는 없었다. 특히, 농림부도 이에 따라 주요 전염병 근절대책으로 '돼지콜레라 근절 5개년 계획과 돼지 오제스키병 근절 6개년 계획'을 세우고 단계별 추진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돼지 콜레라는 2001년에, 돼지 오제스키병은 2003년에 청정화를 선포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청정화 계획은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어서 단지 우리들의 백일몽에 그칠 소지가 다분하다. '돼지콜레라 근절 5개년 계획'은 시작부터 지연되었고, 현재 중반 단계에 이르렀지만 공동방역사업단의 운영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듯 하고, 양돈농가 및 양돈분야 관련 인사들의 인식부족과 윤리 및 도덕성 결여로 계획만 거창했을 뿐이지 수확은 별로 없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는 말이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돼지를 키우고 있는 일선 농장 및 양돈 관련 근무자들의 자세이다. 돼지 콜레라나 PED 및 TGE와 같은 질병의 발생이 의심되거나 확인되면 즉시 방역담당관에게 신고하고 주위 농장에도 알려 전파를 방지하는 자세를 갖추고 철저한 백신프로그램 유지와 위생관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생산하는 돼지는 국민의 건강과 국가 경쟁력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여기에 현장실정에 부합하는 정부의 정책과 그것을 수행하는 일선 담당자들의 혼연일체야말로 IMF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질 좋은 돼지고기의 생산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養豚**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는 말이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돼지를 키우고 있는 일선 농장 및 양돈 관련 근무자들의 자세이다. 돼지 콜레라나 PED 및 TGE와 같은 질병의 발생이 의심되거나 확인되면 즉시 방역담당관에게 신고하고 주위 농장에도 알려 전파를 방지하는 자세를 갖추고 철저한 백신프로그램 유지와 위생관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생산하는 돼지는 국민의 건강과 국가 경쟁력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